

少陽病의 病理에 關한 文獻의 考察

宋 孝 貞*

I. 緒 論

少陽病은 口苦·咽乾·目眩¹⁾·寒熱往來·胸脇苦滿·默默不欲飲食·心煩喜嘔²⁾ 등을 主要症狀으로 하는 一連의 證候群을 나타내는 半表半裏證을 發現하는 病을 말한다.³⁾

少陽病은 A·D 200 년경 傷寒論과 金匱要略의 二部를 포괄하는 張仲景의 傷寒雜病論에서 體系화된 六經病理의 한 證候體系로서, “病의 進行過程에서 體內違和가 進展하여 半表半裏에 屬하는 臟器器官에 炎症을 發하거나 病原體 및 毒素가 집중하는 것을 示唆하는 것이며, 이는 現代醫學上的 胸肋膈膜·肝·胆·脾臟의 病變을 포괄하는^{5,6)} 만큼 그 現代的 意義는 重要하다. 또한 肝·胆의 韓醫學的 機能中 精神醫學的 側面에서도 그 重要성을 찾아볼 수 있다.^{7,8,9)}

그러나 歷代의 醫書를 通해 볼 때 그 表現의 主觀性에 비추어 客觀的인 事實이 缺如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醫者들의 乖離를 가져왔으며 今釋에 이르러 經驗에 立脚한 證候體系로서의 六經病에 대한 現代的인 意味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저자는 代表的인 證候體系인 六經病, 그 少陽病의 病理에 關한 研究의 일환으로 지

금까지 나타난 歷代의 文獻을 拔萃 檢討하여 少陽病의 主要症狀에 따른 本報에서는 寒熱往來·胸脇苦滿·默默不欲飲食·心煩喜嘔의 症候가 發現되는 機轉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少陽病의 病理

1. 寒熱往來

(1) 張 機

① 「病有發熱惡寒者發於陽也 無熱惡寒者發於陰也」¹⁰⁾

② 「傷寒中風五六日往來寒熱胸脇苦滿默默不欲飲食心煩喜嘔」¹¹⁾

③ 「本太陽病不解轉入少陽者脇下硬滿乾嘔不能食往來寒熱」¹²⁾

④ 「血弱氣盡腠理開邪因入與正氣相搏結於脇下正邪分爭往來寒熱休作有時 默默不欲飲食藏府相連其痛必下邪高痛下故使嘔也」¹³⁾

(2) 成無己

① 「發熱惡寒者爲發熱時惡寒竝不見惡寒時熱不見也…此則熱已而寒寒已而熱」¹⁴⁾

② 「惡寒者非寒熱之寒也」¹⁵⁾

③ 「發熱者……其熱在外也……蒸蒸發熱者…

*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明在其內也」¹⁶⁾

④ 「表證未罷邪氣傳裏裏作未實是爲半表半裏其發熱者或始自皮膚而漸傳裏熱或始自內熱而外連於表」¹⁶⁾

⑤ 「寒熱如瘧者作止有時者也 乃往來寒熱則作止無時或往或來日有至於三五發者甚者十數發與瘧狀有以異也」¹⁷⁾

⑥ 「往來寒熱者邪氣之入而正氣不爲之爭則但熱而無寒也乃有熱而寒者調其正氣與邪氣分爭於是寒熱作矣爭則氣鬱不發於外而寒熱爭焉爭甚則憤然而熱故寒已而熱作焉」¹⁷⁾

⑦ 「或謂寒熱者陰陽爭勝也陽時則熱勝則寒此陰陽之爭也」¹⁸⁾

⑧ 「蓋以寒爲陰而熱爲陽裏爲陰而表爲陽邪之容於表者爲寒邪與陽爭則爲寒 邪之入於裏者爲於邪與陰相爭則爲熱 其邪半在表半在裏外與陽爭而爲寒內與陰爭而爲熱 表裏之不拘內外之不定或出或入由是而寒熱且往目來也」¹⁸⁾

⑨ 「邪居表多則多寒邪居裏多則熱邪氣半在表半在裏則寒熱亦半矣審其寒熱多少見其邪氣淺深矣」¹⁴⁾

(3) 陶 華

「往來寒熱陰陽相勝邪正分爭故也 此屬半表半裏證苦陽不足陰邪出表與爭故陰勝而爲寒苦陰不足陽邪入裏與爭故陽勝而爲熱邪居表多則多寒邪居裏多則多熱邪在半表半裏則寒熱相半乍往來乍來而問作也」¹⁹⁾

(4) 張介賓

① 「少陽居三陽之中半表半裏者也」²⁰⁾

② 「寒熱往來者陰陽相爭陰勝則寒陽勝則熱也蓋熱爲陽寒爲陰表爲陽裏爲陰邪之客於表者爲寒邪與陽相爭則爲寒標邪之傳於裏者爲熱邪與陰相爭則爲熱本其邪在半表半裏之間者外與陽爭則爲寒內與陰爭則爲熱或表或裏或出或入是以寒熱往來此半表裏之證也故凡寒勝者必多寒熱勝者必多熱」²⁰⁾

(5) 李中梓：1-(2)⑨ 參丕。

(6) 柯 琴

① 「少陽自受寒邪陽氣裏少既不能退寒又不能發熱至五六日鬱熱內發始與寒氣相爭而往來寒熱一也」²¹⁾

② 「若太陽傷寒過五六日陽氣始衰餘邪未盡轉屬少陽而往來寒熱二也」²¹⁾

③ 「風爲陽邪少陽爲風木一中於風便往來寒熱不必五六日而始見三也」²¹⁾

④ 「寒熱往來病情於外」²¹⁾

(7) 張 璐

「少陽主半表半裏之間其邪入而併於陰而寒出而併於陽則熱」²²⁾

(8) 吳 謙

「少陽之邪進可傳太陰之裏退可還太陽之表中處於半表半裏之間 其邪外併於表半表不解則作寒 內併於裏半裏不和則作熱或表或裏 無常故往來寒熱不定也」²³⁾

(9) 徐大椿：1-(6) 參丕

(10) 章 楠

① 「少陽在陽經之裏陰經之表」²⁴⁾

② 「少陽在半表半裏邪通於陰而寒出於陽則熱故往來寒熱」²⁵⁾

(11) 傅 山

① 「邪正分爭也惟其搏結勢必分爭邪畏正則寒正勝邪則熱分爲 寒熱之休時爭爲寒熱之作時」²⁶⁾

② 「寒熱往來…寒熱無時長短無定至其邪則亦居少陽半表裏間 在傳變之初是由輕入重始則邪犯少陽裏氣出與邪拒故寒熱往來繼則邪深入裏而熱多寒少矣但熱不寒矣至晝夜狀熱 詛妄 而其勢日重在傳變之後是由重出輕經過少陽也 其始晝夜狀熱漸減而爲發熱有時又減爲寒熱往來又減而爲戰汗」²⁶⁾

(12) 陳念祖

① 「此言太陽之轉屬少陽非少陽之自爲病也」²⁸⁾

② 「寒熱往來病形見於外」²⁸⁾

③ 「往來寒熱者以少陽居表裏之間進而就陰則寒退而從陽則熱也」²⁸⁾

(13) 李濟馬

① 「少陽病…胸脇滿或往來寒熱之證即少陽人腎局陰氣爲熱邪所陷而脾局陰氣爲熱邪所壅不能下降連接於腎局而凝聚腎間膠固囚滯之病也」²⁹⁾

② 「寒熱往來者脾局陰氣欲降而或降故寒熱或往來也」³⁰⁾

(14) 陸淵雷

「往來寒熱則惡寒時不知熱發熱時不知寒寒與熱間代而見瘧疾其代表型也」³¹⁾

(15) 余無言

① 「至少陽病之來路一由太陽直傳而來一由陽明遁傳而來」³²⁾

② 「由太陽而來者係頭頂背脊受病後邪熱即由脊髓神經沒肋骨下緣肋滿中之肋間神經而傳於肋膜胸膜次及膈膜者也」³²⁾

③ 「由陽明而來者係陽明受病後邪熱即由胃脘及十二指腸傳於膈膜肋膜而波及胸統膜者也」³²⁾

④ 「太陽傳至少陽者則太陽之證罷本爲惡寒發熱者一變而爲寒熱往來陽明傳至少陽者則陽明證罷本爲蒸蒸發熱日晡潮熱者一變而爲寒熱往來」³³⁾

⑤ 「蓋邪正相爭邪欲入裏邪勝正則寒正欲抗邪正勝邪則熱邪則熱故爲寒熱往來也」³⁴⁾

⑥ 「人衛氣必強營血亦盛故其一受邪時體內立起抵抗抗惡寒與發熱…無熱惡寒者並非永不發熱及時間上發熱較遲耳其人衛氣必較弱營血必較虛體內不能立起抵抗」³⁵⁾

(16) 吳國定

① 「寒熱乃病情之表徵體溫調節中樞及神經系統循環系統新陳代謝機能等之複合證狀」³⁶⁾

② 「寒者及生活機能一般低減表徵之狀態或不易生防禦治愈之活動力之謂熱者及生活機能一般亢進旺盛或防禦治愈之活力活發之謂故病勢亢奮陽邪熾盛者多居於熱病勢沈靜陰邪偏盛者多居於寒」³⁶⁾

(17) 尹吉榮

「少陽人の往來寒熱證은 陰陽이 上表가 되는 三焦의 通會處인 膜理에서 交하고 下裏가 되는 腎府인 膀胱에서 交하여, 下陰의 清氣가 上升하고 上陽의 濁氣가 降하여 陰陽清濁의 調和로 恒常을 유지하는데, 下의 清陰은 中焦의 清陰과 連接하여 全身을 循環한다. 그런데 腎部分에 屬하는 膀胱의 陰氣가 熱邪의 下陷을 받아 內熱로 傷陰하고 脾部分에 連接코져 하나 여의치 못하여 或連接되지 않기도 하여 一實一虛를 일으키므로써 或熱하고 或寒하여 往來寒熱이 되는 것이다」³⁷⁾

「少陽人の往來寒熱은 外는 寒하고 裏는 熱한 것으로 外寒內熱의 證으로 外寒勝하면 惡寒하고 內熱이 勝하면 發熱한다」³⁸⁾

「體熱產出量이 增大되고 體熱放出量도 增大되는데 外寒으로 表皮가 緻密해져서 體熱放出量이 不充分하므로 惡寒發熱하고 體溫이 上升하다가 體熱產出量과 體熱放出量에 混亂이 일어나고 血流에도 混亂이 일어나 一實一虛가 되므로 惡寒과 發熱이 교대되어 寒과 熱이 往來하는 것이다」³⁹⁾

2. 胸脇苦滿

(1) 張機：1-(1)②③④ 참조

(2) 成無己

① 「邪氣自表傳裏必先胸膈已次經心脇而入胃邪氣入胃邪氣入胃爲入腑也 是以胸滿多帶表證脇滿者當半表半裏證也」⁴⁰⁾

② 「大抵胸脇滿以邪氣初入裏未停留爲濕熱醫積而不行至生滿也」⁴⁰⁾

(3) 陶華：2-(2) 참조

(4) 張介賓：2-(2) 참조

(5) 李中梓：2-(2) 참조

(6) 柯琴

「少陽脈循胸脇邪入其經故苦滿」²¹⁾

(7) 吳謙

「邪湊其經」²³⁾

(8) 徐大椿：2-(6) 참조

(9) 章楠：2-(6) 참조

(10) 傅山

「邪欲深入正復內拒扭合於半表半裏故結於脇下也」⁴¹⁾

(11) 陳念祖：2-(6) 참조

(12) 李濟馬：1-(13) 참조

(13) 陸淵雷

「胸脇苦滿謂肋骨弓下有困悶之自覺證……

不但肝脾胰三臟腫大亦因胸脇部之淋瀝腺腫硬故也…乾性肋膜炎其代表型也」³¹⁾

(14) 余無言

「邪氣通留於胸脇之間欲入裏而不得故…胸脇苦悶作痛也」⁴²⁾

(15) 吳國定

「邪居半表半裏與正氣相爭搏結脇下」⁴³⁾

(16) 尹吉榮

「胸脇滿은 胸膈間에 留滯된 熱로 인해 水分이 응취되어 痰飲으로 變成하려는 證」³⁹⁾

3. 默默不欲飲食

(1) 張機：1-(1)②③④ 참조

(2) 成無己

「默默由邪方自表之裏在表裏之間…不欲食者未至於裏…在表裏之間也」⁴⁴⁾

(3) 張介賓：3-(2) 참조

(4) 柯琴

「膽氣不舒故默默不欲食 木邪犯土故不欲飲食」²¹⁾

(5) 吳謙

「少陽邪近乎陰故默默也 少陽木邪病則妨土故不欲飲食也」²³⁾

(6) 徐大椿：3-(4) 참조

(7) 章楠

「少陽之裏正當胃口邪熱裏盛故…」²⁵⁾

(8) 傅山

① 「默默者心陽之不開不欲飲食者胃陽不開皆樞閉之狀也」²⁶⁾

② 「少陽之病生於火相火乘胃則默默不欲飲食」⁴¹⁾

(9) 陳念祖

「默字從黑伏明之火鬱而不伸故其形 木火鬱於中致胃絡不和故」⁴⁵⁾

(10) 陸淵雷

「因病毒蓄積於膈膜附近 胸脇部 炎症影響胃機能故也」⁴⁶⁾

(11) 余無言

① 「左肋內之脾臟受邪氣之侵擾腫大 而弛緩不能逼血液 注胃體以助消化也」⁴²⁾

② 「內有脾臟腫大不助消化外而口苦無味氣逆作嘔故不欲食也」⁴⁷⁾

(12) 吳國定

① 「脾胃健運受阻故默默不欲言亦不思飲食」⁴⁸⁾

② 「正邪相持其氣鬱結無以 利比氣因之」⁴³⁾

4. 心煩喜嘔

(1) 張機

① 1-(1)②③④ 참조

② 「陽明病……而嘔…可與小柴胡湯上焦得通津液得下胃氣因和身最然汗出而解」⁴⁹⁾

(2) 成無己

① 「其邪熱傳裏故有胸中煩心中煩虛煩之別」⁵⁰⁾

② 「表邪欲傳裏裏氣上逆則為嘔也是以半表半裏證多云嘔也」⁶¹⁾

(3) 陶華：4-(2) 참조

(4) 張介賓：4-(2) 참조

(5) 柯琴

① 「苦喜不欲病情見於內…非眞嘔眞滿眞不能飲食也心煩喜嘔…無形之半裏」²¹⁾

② 「相火內熾故心煩也邪正相爭故…喜嘔也…木氣上逆」²¹⁾

(6) 吳謙

「邪在胸脇火無從泄上遏於心故心邪欲入裏裏氣外拒故嘔嘔則木氣舒故喜之也」²³⁾

(7) 徐大椿：4-(5) 참조

(8) 章楠

「邪熱擾而煩心嘔則氣得暫寬故喜嘔也」²⁵⁾

(9) 傅山

① 「心煩者相火擾之喜嘔者胃鬱求伸非常自嘔也」⁶²⁾

(10) 陳念祖

「木火交亢故爲心煩木喜條達而上升故喜嘔」⁴⁵⁾

(11) 陸淵雷：3-(10) 참조

(12) 余無言

「心煩者乃邪氣擾紀胸中故心煩而不安喜嘔者比屬邪犯胃臟及膽囊或橫膈膜且有上犯之勢故」⁴²⁾

(13) 吳國定

「熱邪犯胃胃氣上逆故心煩喜嘔」⁴⁸⁾

III. 總括 및 考察

寒熱往來의 症候를 發現하는 機轉을 살펴 보면 張機는 病形이 發熱惡寒하면 陽病으로 前提하고 「本太陽病不解轉入少陽」「血弱氣盡腰理開邪氣因入…正邪分爭」으로 관찰하였으며 이를 「傷寒中風五六日」로 要約하였음을 알 수 있다.

成無己는 病形을 「寒已而熱熱已而寒」으로 表現하였으며 그 機轉은 正邪分爭과 陰陽之爭으로 觀察하였는바, 邪氣의 침입에 正氣가 相爭하여 寒熱이 發現되고 正氣가 相爭하지 못하면 熱하고 無寒하다고 하였으며, 「陽勝則熱

陰勝則寒」으로 前提하고 한의학적인 陰陽과 表裏寒熱의 분류에 따라 「邪之客於表」를 「邪與陽爭」으로 「邪之入於裏」를 「邪與陰爭」으로 表現하여 「邪在半在表半在裏」하므로 「外與陽爭而爲寒」「內與陰爭而爲熱」로 觀察하였음을 알 수 있다.

陶華·張介賓·李中梓 等도 成無己의 「陰陽之爭」의 理論을 따르고 있으나 陶華는 「陽不足陰邪出與爭故陰勝而爲寒」「陰不足陽邪入裏與爭故陽勝而爲熱」로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다. 傅山도 邪正分爭의 理論을 인용하였으나 成無己가 「正邪分爭」으로 表現한데 비추어 「邪畏正則寒」「正勝邪則熱」로 表現하고 있다.

柯琴과 徐大椿은 그 機轉을 새로운 觀點에서 觀察한 것을 알 수 있는데, 卽 陽氣가 衰小한 가운데 寒邪가 少陽에 直中한 경우와 寒邪가 表에서 未解하여 五六日이 경과한 후 陽氣가 衰하여 지므로 未解한 表邪가 少陽으로 傳經한 경우, 그리고 風은 陽邪이며 少陽은 風木에 속하므로 風邪의 침입으로 즉시 寒熱往來가 發現되는 것으로 表現하고 있다.

張璐는 「邪入併於陰」「邪出併於陽」으로 寒熱의 기전을 설명하고 있으며 章楠·陳念祖等도 유사하게 表現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成無己等의 理論과 相異함을 알 수 있다.

또 吳謙과 章楠은 成無己等과는 달리 少陽의 表는 太陽으로 少陽의 裏는 太陰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吳謙은 이러한 觀點에서 邪氣가 邪外併於表해서 半表不解하여 寒, 邪氣가 內併於裏로 半裏不和하여 熱이 發生하는 것으로 表現하고 있다.

李濟馬는 少陽病을 少陽人病으로 觀察하였고 특히 寒熱往來는 少陽人表寒病으로서 少陽人의 腎局과 脾局의 陰氣가 熱邪의 영향으로 서로 連接이 되지 않으므로 발현된다고 하였는바 그

학설이 특이하다.

今釋에 있어서 陸淵雷는 瘧疾을 그 代表型으로 삼았으며 余無言은 胸肋膈膜의 病變으로 보았으며 吳國定은 寒熱을 機能의 沈衰와 亢進狀態로 관찰「病勢亢奮陽邪熾盛」하면 多熱하고 「病勢沈靜陰邪偏盛」하면 多寒하다고 표현하고 있었다.

尹吉榮은 李濟馬의 理論에 근거하여 少陽人의 脾局의 清氣와 腎局의 濁氣의 升降이 不利하여 寒熱이 발현된다고 설명했다.

以上の 내용을 考察하면 張機의 理論은 柯琴等의 理論으로 보다 확실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卽 「本太陽病不解轉屬少陽」의 표현은 太陽傷寒의 表邪가 未解하다가 陽氣가 비로소 衰하므로 轉入少陽한 傳經을 말하는 것이요.

「血弱氣盡…邪氣因入」은 陽氣가 이미 衰한 상태에서 寒邪가 直中少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風爲陽邪…不必五六日而始見」의 표현은 張機의 「傷寒中風五六日」의 「中風」의 개념에 대한 관찰인듯 하나 더욱 研究해야할 문제인 것 같다.

그 機轉에 있어 成無己와 陶華의 이론을 종합하여 관찰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外…陰邪出表與陽爭→陰勝→寒→外
 …邪出表…寒
 半表半裏
 內…陽邪入裏與陰爭→陽勝→熱→內
 …邪入裏…熱

위의 요약에서 寒熱의 病情은 入裏하면 熱不寒함에 비추어 熱은 邪氣가 入裏하려는 熱이며, 寒은 邪氣가 入裏함에 따라 退去하는 寒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張璐·章柯·陳念祖의 理論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熱不寒은 陽明病이며 張機의 「無熱惡寒者發於陰」에서도 알 수 있듯이 裏는 陽明을 가리켜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吳謙·章楠 등이 이해한 少陽의 裏는 太陰이라는 說은 근거가 없다.

傳山이 「邪畏正」「正勝邪」의 機轉으로 寒熱이 發現된다고 하였으나 成無己는 邪氣가 入하는데 正氣不爭하여 熱無寒한다고 하여 相反되는 面이 있으나 더욱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李濟馬의 清氣와 濁氣의 升降이 不利하므로 寒熱이 發現된다는 理論은 새로운 관찰이며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 같다.

今釋에 있어서 陸淵雷는 瘧疾을 그 代表型으로 삼고 있으나 成無己가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陸氏의 이론은 타당성이 없다.

胸脇苦滿의 症候를 發見하는 機轉을 살펴보면, 張機는 「太陽病下解轉入少陽」「邪氣因入與正氣相搏結於脇下」로 표현하였는데 이는 邪氣가 直中少陽하거나 少陽으로 表邪가 正氣가 邪氣와 相搏하여 脇下에 結搏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成無己는 邪氣가 入裏하려면 胸膈→心脇→胃의 順으로 轉入하는데 이로써 脇滿은 半表半裏證으로 관찰하였고 「邪氣初入裏」하되 未實한 상태이며 濫熱이 鬱積不行하므로 苦滿하다고 하였으며, 陶華·張介賓·李中梓 등이 이 理論을 引用하고 있다.

柯琴·吳謙·徐大椿·章楠·陳念祖 등은 少陽經脈에 邪氣가 侵入한 것으로 관찰하고 있다.

傳山은 張機의 理論을 따르고 있으며 今釋에 있어서 余無言·吳國定 등도 張機의 理論을 引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陸淵雷는 肝脾胰臟腫大 및 胸脇部淋巴腺의 腫硬으로 관찰 乾性肋膜炎을 代表型으로 삼은 것은 特異하다.

李齊馬와 李濟馬의 理論에 立脚한 尹吉榮의 관찰은 새롭고 독특한 것으로서 깊은 연구가 요망되는데 요약해보면 胸脅間에 留滯된 熱로 因해 水分이 凝聚되어 痰飲으로 變成하려는 證으로 파악했다.

以上の 내용을 考察하면 表邪가 入裏하는 과정은 胸→脇→胃임을 알 수 있으며 脇은 半表半裏이며 少陽經의 循行處이므로 邪氣가 半表半裏를 침입하면 少陽經의 循行處인 脇에서 正氣와 邪氣가 相搏하여 發現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卽 胸脇苦滿은 胸에서 脇으로 病原體가 轉移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로써 發現部の 所屬臟器인 肝・脾・膈三臟과 胸肋膈膜의 病變을 포괄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默默不欲飲食의 症을 發現하는 機轉을 살펴보면, 張機는 正邪分爭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成無己는 邪氣가 半表半裏에 있음으로 發現한다고 보았으며 張介賓도 이를 引用하고 있다.

吳謙・柯琴・徐大椿・陳念祖等은 木邪가 犯土하여 發現된다고 보았는데 柯琴・徐大椿은 膽氣不舒를 木邪로 보았고, 陳念祖가 木火를 伏明之火로 관찰하였다. 또한 章楠은 少陽之裏는 胃口로 관찰, 胃口에 邪熱이 盛하므로 發現된다고 보았으며 傅山은 相火가 乘胃함으로써 心陽과 胃陽이 不開한 것으로 表現하고 있다.

今釋에 있어서 陸淵雷는 膈膜과 胸脇部の 炎症으로 胃機能에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았으며 余無言은 脾臟腫大로 消化力を 돕지 못하여 발현된다고 보았으며 吳國定은 張機의 說을 引用하여 正邪相持하므로 氣가 鬱結하여 「脾胃健運受阻」로 표현했다.

以上の 내용을 고찰하면 木克土의 五行病理에 따라 少陽膽木邪가 胃土氣를 克하므로 脾胃健運이 阻害를 받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柯琴・徐大椿은 相火內熾으로 心煩하며 邪正相爭으로 喜嘔한다고 하였으며 이를, 木氣上逆으로 해석하였으나 「非眞嘔」라 한것은 特異하다.

吳謙은 胸脇의 火가 「上遏於心」하므로 心煩한다 하였으며 邪氣가 入裏함에 裏氣가 外

拒하므로 嘔한다 하였고 嘔하면 木氣舒하므로 「喜之」한다고 표현하였다.

章楠은 邪熱로 因해 心煩하고 嘔하면 「氣得暫寬」하므로 喜嘔한다 하였으며 傅山은 相火의 所因으로 心煩한다 하였으며 相火가 胃를 阻害하여 胃鬱하므로 喜嘔한다고 하였다. 陳念祖는 木火交亢으로 心煩을 설명하였고 木氣는 上升하기를 잘하므로 喜嘔한다 했다.

余無言은 胸中の 邪氣로 인하여 心煩하고 邪氣가 胃・膽과 橫膈膜을 阻害하여 喜嘔한다고 했으며 吳國定은 熱邪犯胃하여 胃氣上逆하므로 心煩喜嘔한다 했다.

以上の 내용을 고찰하면, 「邪熱傳裏」하면 心煩한다 하였는데 邪熱을 相火, 胸脇의 火, 木火로 표현하고 있으나 이것은 다 邪熱로 포괄할 수 있으므로 邪熱傳裏하므로 心煩한다고 요약할 수 있으며 裏는 陽明胃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므로 胃氣上逆으로 嘔를 발현하는 것이다.

IV. 結 論

著者は 少陽病의 病理에 關한 文獻的 考察을 通하여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少陽病은 半表半裏證으로서 寒熱往來・胸脇苦滿・默默不欲飲食・心煩喜嘔等の 證候를 發現한다.

2) 寒熱往來는 邪氣가 半表半裏를 침입하여 外로는 邪氣가 出表하므로 寒을 發現하며 內로는 邪氣가 入裏하므로 熱을 發現한다.

3) 胸脇苦滿은 邪氣가 半表半裏를 침입하여 少陽經의 循行處인 胸脇에서 正氣와 邪氣가 相搏하므로 發現된다.

4) 默默不欲飲食은 邪氣가 半表半裏를 침입

하여 木克土의 五行病理에 따라 少陽膽邪가 胃氣를 克하므로 脾胃의 健運이 阻害를 받아 發現된다.

5) 心煩喜嘔는 邪氣가 半表半裏를 침입하여 邪熱이 傳裏되어 裏氣가 上逆하므로 發現된다.

參 考 文 獻

1. 金完熙：臟腑生理學，서울，慶熙大 東醫生理學教室，1974.
2. 文湄典：東醫病理學各論(I)，서울，慶熙大 東醫病理學教室，1974.
3. 尹吉榮：四象體質醫學論，서울，한일문고，1973.
4. 李濟馬：東醫壽世保元，서울，乙酉文化社，1975.
5. 柯 琴：傷寒來蘇集，臺北，旅風出版社，1973.
6. 裴吉生：珍本醫書集成，臺北，世界書局.
7. 傅 山：世補齋醫全集，臺北，五州出版社，1972.
8. 徐大椿：徐靈胎醫書三十二種，서울，慶熙大 韓醫學部，1974.
9. 余無言：傷寒論新義，臺北，文光圖書有限公司，1964.
10. 吳謙外：醫宗金鑑，서울，慶熙大 韓醫學部，1974.
11. 吳國定：傷寒論詮釋，臺北，上海印刷廠，1964.
12. 傅鐵樵：傷寒論輯義，臺北，旋風出版社，1976.
13. 陸淵雷：傷寒論今釋，臺北，文光圖書有限公司，1961.
14. 李中梓：醫宗必讀，上海，上海衛生出版社.
15. 張介賓：類經，서울，慶熙大 韓醫學科，1975.
16. 張介賓：景岳全書，서울，杏林書院，1975.
17. 張 機：仲景全書，서울，杏林書院，1978.
18. 章 楠：醫門棒喝，紹興，紹興墨潤堂書苑，1929.
19. 張 璐：張氏醫通，臺北，自由出版社，1964.
20. 陳念祖：陳修園醫書七十二種，臺北，文光圖書有限公司，1964.
21. 陳夢雷：醫部全錄，臺北，新文豐出版社.